

현대 국어의 대우법 연구

—表式化 문제를 중심으로*—

徐 正 洙

(首都女師大)

차 례

- | | |
|---------------|------------|
| 머리말 | Ⅲ. 제3자 대우법 |
| I. 서 론 | A. 주체 대우법 |
| Ⅱ. 청자 대우법 | B. 기타 대우법 |
| A. 청자 대우법의 表式 | Ⅳ. 맺음말 |
| B. 청자 대우법의 동분 | |

I. 서 론

1. 국어의 대우법(待遇法)이란 話者が 聽者 또는 話中 人物과의 상대적 관계에 따라 알맞은 말씨를 골라 쓰는 법을 말한다.¹ 여기 “알맞은 말씨”란 순수한 언어적 표현 형식과 내용에 덧붙여서 선택되는 국어 話法の 일면을 가리킨다. 이는 話法の “style” 처럼 화자의 의향과 태도에 의하여 선택되는 것이다. 그러나 화자의 자유로운 취향이나 개성에 따라 선택되는 일반 “style”의 경우와는 다른 점이 있다. 청자나 화중 인물과의 대인 관계에 의해서만, 곧 그런 상대적 관계에 알맞게, 선택되어야 하는 것이 대우법이 요구하는 말씨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어의 대우법은 흔히 말하는 “style of speech”로는 충분히 표현키 어려운 특이성이 있는 것이다. 요컨대 국어의 대우법은, 주로 표면적 현상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단순한 문체적 변이(stylistic variants)와는 달리, 모든 문장의 생성에 근본(심층)부터 관련되어 있어서 각 대상 인물에 대하여 화자로 하여금 알맞는 대우 의식을 필수적으로 드러내게 하는 언어·사회학적 특성을 지닌다.

이 대우법에 관하여 종래 여러 문법서와 국내의 논문 등에서 많은 연구 발표가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대부분 말씨의 “높낮이 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 용어만 보더라도

* 이 논문은 서울 大學校 語學研究所 주최 제6회 語學研究會에서 발표한 요지를 중심으로 작성된 것이다. 발표 당시 시간적 제약으로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던 내용들이 많이 보충되었음을 밝혀 둔다. 이 논문의 작성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조언을 해 주신 高永根 교수께 감사를 드린다.

¹ 이 待遇法이란 용어는 成善徹(1970)에서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敬語法, 尊待法, 恭待法, ‘말의 높임’, 尊卑法 또는 恭待法과 下待法 따위가 흔히 쓰이고 있어서 대우법은 상대를 높이고 낮추는 법으로서 파악되고 있다.² 더구나 위 용어 중 대부분은 높임말을 쓰는 법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국어의 대우법이 上下階層의 구별이 엄격하던 사회 제도와 규범의 영향으로 발달했고, 신분의 차별이 현격한 사회에서윗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낮춤말을 쓰고 아랫 사람이 윗사람에게 높임말을 깎듯이 써야 한다는 우리의 언어 사회적 실정에 비추어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런 높낮이 말씨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른바 자유 평등의 민주 제도와 사상, 내지는 외래 언어 문화의 영향으로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변화 양상과 추세에 관해서는 뒤에서 상론하려 하거니와 아무튼 높낮이의 구별이 상당히 완화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종래처럼 尊卑 또는 공대와 하대라는 높낮이 등으로보다도 일종의 문체적 관점에 입각하여 이 대우법을 파악 기술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³ 종래 아주낮춤(極卑稱)이라고 한 “해라” 체만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을 낮추어 말한 것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平交間에 두루 쓰이는 경우, 특히 현대 文語體에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쓰는 경우 따위는 “낮춤”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는 아주 낮춤이라고 하기보다는 그것은 平交體(plain speech style)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⁴ 그밖에 아주높임(하소서, 합니다 따위)과 예사높임(하오) 또는 “해요”체 같은 말씨가 두루 섞여 쓰이는 현상 같은 것도 높낮이 관념이 희박해진 한 증거라 볼 만하며, 따라서 문체적 차이로 보게 되는 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필자로서는 높낮이의 관념이 희박해진 것만은 사실이라 보며 또 문체적 관점의 타당성도 일면 인정하나 아직도 그러한 높낮이 구별을 전혀 무시하고 문체적 관점으로만 파악 기술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는 양자를 절충하여 높임, 낮춤 따위 용어 대신 “존대”와 “비존대”라는 말로써 높낮이 구별을 완화표현하고, 그밖의 세부적인 말씨 차이는 문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는 방식을 취했다. 또한 이런 의미에서 종래 써오는 여터 용어 대신 “대우법”이라는 말을 채택하여 쓰기로 한 것이다. 상대방을 높이고 낮춘다기 보다는, 언어적으로 알맞게 대우하여 보인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⁵

2. 국어의 待遇法은 가장 두드러진 국어의 특성 중 하나이니만큼 일찍부터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어 왔다. 현대어보다 더욱 복잡하고 엄격한 中世語의 대우법 체계에 관한 깊은 관

² 敬語法・李崇寧(1960, 61등), 尊待法・허웅(1968), 김석득(1968), 恭待法・이희승(1960), “말의 높임” 최현배(1961), 김윤경(1957), 경인승(1956), 共尊異法, 강운호(1969), 恭待法과 下待法, 김민수・이기문(1970),

³ 朴昌海(1964), Martin(1954)에서는 대우법을 “Speech Style”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다.

⁴ 朴昌海(1964), 및 Martin(1954)에서 쓰인 용어이다.

⁵ 待遇法이란 말도 본래 물질적 또는 신분적 대우라는 뜻으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어감상 난점이 있다. 그러나 언어적 대우라는 새로운 뜻을 부가하는 것도 그렇게 무리한 것은 아닐 것이다.

심과 열던 학술 논쟁은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새롭거니와 현대어에 관한 대우법 연구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⁶ 여기서는 중세 국어의 대우법에 관한 것은 논외로 하고, 현대어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모든 문법서에서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 논문도 상당수 보인다. 그 주요한 것으로는 위의 n.2 (p.79)에 열거한 문법서 이외에 정렬모(1946), 박창해(1960), Clark (1958)등 저서가 있고, 연구 논문으로는 Song (1966), 김석득(1968), 成耆徹(1970), Lee (1970), Martin (1954)등이 있다. 대부분의 학교 문법서들에서는 대개 국어의 대우법을 화자의 높낮이에 따르는 이른바 공손법(곧 청자 대우법)과, 화중의 인물을 높이는 이른바 존경법(곧 주체 대우법)의 양자로 나누고 전자는 대체로 4~5 등급으로 갈라 형태와 용법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 논문에 있어서는 대우법의 단순한 등급 분류나 용법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세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을 시도할 뿐만 아니라, 간결한 표식화(formalization)까지를 목표로하고 있는 것도 있다(Lee, 1970).

3. 이 논문에서는 현대 국어의 대우법에 관한 종래의 여러 분석과 기술을 토대로 하고 거기에 새로운 관찰과 분석을 가미하여 좀더 합리적이고 간결한 기술(특히 표식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한 목표를 위하여 우선 그 이론적 바탕으로서 Ross (1968)등에서 제시된 이행적 분석(performative analysis) 이론을 택하였다. 대우법의 기술에 있어서는 말하는이, 듣는이 및 화중인물의 3자가 내면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종래의 이론에서는 특히 듣는이를 문장외적 요소로 다루어 왔기 때문에 대우법 기술에 난점이 있었던 것이다. 이행적 분석 이론은 듣는이를 심층 구조에서 필수 요소로 고려하는 특성이 있어서 이 대우법 기술에는 가장 알맞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4. 본론에서는 대우법을 우선 청자 대우법과 제3자 대우법으로 나누어 다루고 표식화를 시도하며 아울러 문제점들을 제기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청자 대우법이란 말은 듣는이와의 상대적 관계에 맞추어 말하는 법을 일컫는다. 제3자 대우법은 화중에 언급되는 인물에 따라 표현되는 것이다. 여기 “제3자”라 한 것은 말하는이와 듣는이 밖에 화중에 언급되는 인물을 총칭한다. 종래 이를 흔히 주체 대우법이라고만 했으나, 주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주체의 대격(또는 여격)에 대한 관계로 용언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므로 제3자라 하였다. 곧

저는 그것을 김선생님께 드리고 왔읍니다. (1)

위 문장에서 줄친 부분은 화자나 주체와 직접 관련 없는 화중의 인물에 따라 선택된 대우법을 보인 것이다.

⁶ 해방전 日人學者 小倉進平(1929, 38)에 이어 해방후 金亨奎(1947, 62), 許雄(1954, 61, 62, 63), 金在寬(1958), 安秉禧(1961) 및 李崇寧(1961, 62, 63)의 여러 논문이 중세 국어의 대우법 체계를 둘러싸고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다.

II. 청자 대우법

5. 청자 대우법은 말하는이가 듣는이와의 상대적 관계에 따라 결정하는 말씨라 함은 이미 지적하였다. 종래 이는 공손법, 겸손법, 상대 존대법 또는 청자존대 따위 여러 가지 용어로 불려 왔다. 그리고 영어로는 “levels of speech”라 부르는 일이 있다. 필자는 다만 다른 대우법과의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문자 그대로 청자 대우법이라 부르기로 하였다. 상대 대우법이란 말은 “상대”라는 말이 반드시 “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모호성이 개재될 가능성이 있다. 또 겸손법이니 공손법이니 하는 말은 경어법, 존경법, 공대법 따위 용어와 혼동되기 쉬운 결함이 있으므로 부적당하다고 생각된다. 술어는 되도록 명확한 것이 이상적이라 할 것이다.

A. 청자 대우법의 표식(表式)

6. 청자 대우법은 문장 내용과는 관계 없이 다만 종결어미의 형태를 가지고 표시된다. 화자가 말을 끝맺는 어미 형태를 어떤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 청자 대우법은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어미 형태를 선택하는 기준은 화자의 청자에 대한 관계인 것이다. 흔히 우리 문장에서는 청자가 표면상 나타나지 않고 선택된 어미만 표면화된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만 깊이 살펴 보면 반드시 청자의 존재가 개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는 갑니다. (2)

나는 가. (3)

나는 간다. (4)

위 문장에 청자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화자가 그 문장을 발화할 때의 의식 속에는 각기 다른 청자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짐작키 어렵지 않다.

종래 이런 경우 청자의 존재는 언어외적 환경 요소로 해석하여 기술하였다. 곧 표면에 나타난 문장 형태만을 놓고 분석 기술하는 것만이 순수 언어학적 과업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표면구조만을 대상으로 언어 현상을 기술한다는 것은 극히 피상적인 결론에 빠지기 쉽다. 여기에 우리는 그런 발화가 이루어지는 저변 상황 곧 심층구조(내면구조)를 바탕으로 언어 현상을 파악 기술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2), (3), (4)에서 각기 다른 종결어미가 선택되는 이유를 명시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물론 환경에 따라 그와 같이 표현 형태가 달라졌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일반성있는 언어학적 설명은 되지 못한다.

7. 일반적으로 청자 대우법을 기술하는 내면구조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위의 (4)를 예로 들어 보기로 한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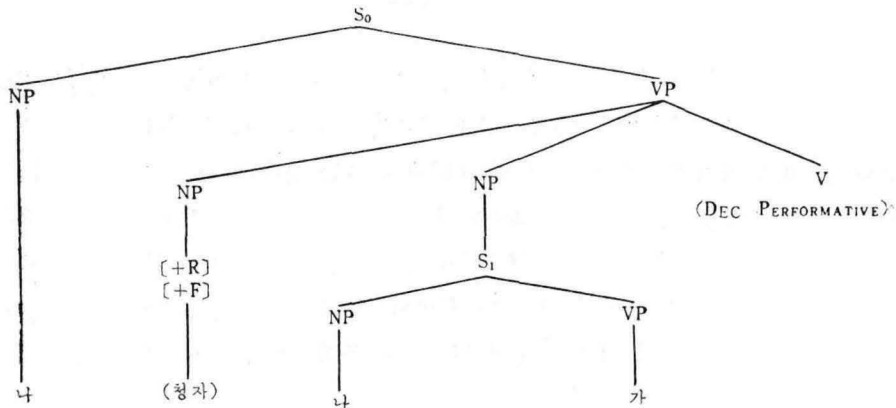


도표 (5)에서 이행문장의 주어는 화자(NP)이고 2인칭 간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NP가 청자이다. 내포문장 S_1 은 사실상 발화 내용이 된다. 청자 NP에 표시된 자질은 이른바 [+RESPECT, +FORMAL]이라 하는 것으로서 화자가 존대하고 있는 청자를 표시하고 있다(§9 참조). 이 자질표시에 따라 S_1 의 VP에는 상응한 종결 어미 “니니다”가 선택되어 (4)와 같은 문장이 생성될 것이다. 이를 표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우선 구조 분석은 일반적으로

$$\begin{array}{ccccccc}
 \text{NP} & - & \text{NP} & - & [\text{X} - \text{V} - \text{t}_a]_s & - & \text{X} \\
 & & \begin{bmatrix} \alpha R \\ \beta F \end{bmatrix} & & & & \\
 [1] & [2] & [3] & & [4] & [5] & \\
 (\text{화자}) & (\text{청자}) & & & (\text{기본어미}) & (\text{이행동사포함}) & \\
 \text{R: [RESPECT]}, \text{F: [FORMAL]}, \alpha, \beta \rightarrow \pm & & & & & &
 \end{array} \quad (6)$$

변형 규칙을 보이면

$$\begin{array}{ccccccc}
 \text{NP} & - & \text{NP} & - & [\text{X} - \text{V} - \text{t}_a]_s & - & \text{X} \\
 & & \begin{bmatrix} +R \\ +F \end{bmatrix} & & & & \\
 1 & 2 & 3 & 4 & 5 & \text{OBLIG} & \\
 1 & 2 & 3 & ipnita & 5 & \longrightarrow &
 \end{array} \quad (7)$$

조건 : 5는 [+performative]를 내포한다.

곧 청자 NP에 표시된 자질에 따라 기본어미 ta 가 $ipnita$ 로 변형되는 것을 보이고 있다. 위의 문장 (2), (3) 따위도 (7)과 같은 변형규칙으로 청자 NP에 적절한 자질을 표시함으로써 상응한 어미 선택이 이루어져 자동적으로 생성될 것이다. 물론 그 변형 과정에는 이행문

삭제 규칙(performative deletion) 등이 따르고 음운 규칙이 적용될 것이나 여기서는 일일이 언급치 아니한다.

8. 여기서 따져 둘 일은 화자 NP에 표시된 자질(feature)에 관한 것이다. 첫째로 자질을 청자 NP에만 표시한 사실이다. 청자 대우법에 있어서는 화자와 청자의 양자 관계에 따라 표현형식이 결정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청자에게만 자질을 표시함은 일론 남득이 안갈는지 모른다. 사실상 화자와 청자 양편에 자질 표시를 한 예도 있는 것이다 (Lee 1970: p.93). 그러나 양편에 자질 표시를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에 불과하다. 화자나 청자를 표시하는 NP에 주어지는 자질은 고유자질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 편에만 나타내면 족한 것이다. 가령, 청자에게 [+RESPECT]와 같은 존대 자질이 주어진 경우란 화자와 대비해서 그와 같이 된 것인만큼 화자에 다시 [-RESPECT]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미 그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화자가 “나”라는 말 대신 겸양어 “저”나 “소인” 따위 말을 써야 할 경우에도 화자에게 [+HUMBLE] 따위 자질을 줄 필요가 없다. 청자에 표시한 자질이 일정 등급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나” 대신 “저”를 써야 한다는 것이 예측되기 때문이다 (§16 참조).

더구나 이행적 분석에 있어서는 화자가 일인칭 주어 “나”가 되어 일정하므로 화자에 대한 자질 표시는 전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청자에 대한 자질 표시 방법도 매우 간단하게 된다. “나”를 기준으로 청자의 위치를 나타내면 되기 때문이다. 청자가 “나”의 손윗 사람이냐, 손아랫 사람이냐 하는 것만 알면 자동적으로 자질 표시가 가능한 것이다. “나”의 할아버지, 상관, 장상, 선생님 등에는 [+RESPECT], 반대로 “나”의 동생, 후배, 부하, 연하, 제자 따위에는 [-RESPECT]라는 자질 표시를 하면 되는 것이다.

9. 다음에는 청자에 대하여 표시하는 자질의 등급 문제이다. 이상에서 자질 표시는 청자에게만 하면 족하다고 지적했거니와, 이제는 각 청자에 대하여 어떤 내용으로 자질 표시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청자의 화자 “나”에 대한 관계는 여러 가지로 갈라 볼 수 있고 또 각기 알맞은 말씨를 써야 하는만큼, 청자의 구분 표시문제는 상당한 복잡성을 띤다.

위의 (6)에서 필자는 청자에 대한 자질 표시를 일단

$$\begin{bmatrix} \alpha R \\ \beta F \end{bmatrix}, \quad \text{단, } \alpha, \beta \rightarrow \pm$$

R: RESPECT, F: FORMAL

로 했다. 이는 다음과 같이 4 등급의 자질 표시가 가능함을 뜻한다.

$$[+RESPECT, +FORMAL] \quad (\text{격식적 존대}) \quad (8)$$

$$[+RESPECT, -FORMAL] \quad (\text{비격식적 존대}) \quad (9)$$

$$[-RESPECT, -FORMAL] \quad (\text{비격식적 비존대}) \quad (10)$$

$$[-RESPECT, +FORMAL] \quad (\text{격식적 비존대}) \quad (11)$$

이상 4 등급의 자질 표시는 필자가 최근에 도달한 결론이다. 이는 대우법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 특히 청자에 대한 등급 분류 결과와 필자의 최근 국어 대우법 현상에 관한 고찰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는 여러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간단히 살피고 필자의 견해를 논의함으로써 이 4 등급 자질 표시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B. 청자 대우법의 등분

10. 청자 대우법의 가장 중요하고도 복잡한 문제가 청자 대우의 등분 문제이다. 우리의 용언 어미는 같은 서술문이라도 청자의 층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쓰일 수 있도록 발달되어 있다. 의문문이나 명령문, 청유문의 경우에도 어미의 종류가 매우 많고 갖가지 등분으로 나누어 쓸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화자가 청자를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 말을 할 수 있게 됨을 뜻한다.

청자를 몇 가지 등분으로 나누느냐 하는 문제는 최근까지 여러 학자들이 다루어 왔으나 그 견해는 가지 각색으로 갈라져 있다. 그것은 화자와 청자의 대인 관계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가 개입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지위의 상하 관계, 가족적 서열관계, 친밀친 관계, 연령관계 또는 말할 당시의 심리적 감정적 관계 등이 복합되어 청자에 대한 대우가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를 일정 불변한 것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대체로 다음 3 가지 유형으로 묶어 볼 수 있다.

11. 청자 등분의 제 1 유형: 청자를 높낮이에 따라 4~5 등급으로 나누고 반말을 불확정적으로 처리한 점이 특색이다. 우선 그 대표적인 예로 최현배(1961: 252)에 보면 듣는이의 높이는 정도를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다.

- | | |
|-------------|--|
| a) 아주낮춤(해라) | 읽는다 |
| b) 예사낮춤(하계) | 읽네 |
| c) 예사높임(하오) | 읽으오(소) |
| d) 아주높임(합쇼) | 읽읍니다 |
| e) 등위(반말) | 해<“해라”와 “하계”의 중간 또는 “하계”와 “하오”의 중간임——아주높임은 아님> |

김윤경(1957: 137)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가름을 하고 반말은 “하오”와 “하계”의 중간 또는 “하계” 이하라고 했다.

허웅(1968: 63)에 있어서도 다른 것은 대동소이하나 반말은 “하계”와 “하오”의 중간이라 처리했다.

정인승(1956: 198)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4 등급 구분을 보이고 반말은 “높낮이를 나타내지 않는 말씨”라고 가장 불확실하게 처리했다.

이희승(1969: 98)에서는 위의 4 등분 외에 최상위 등급으로 “하소서” 체를 덧붙여 5 가지 등급으로 하는 한편, 반말은 “해라”도 “하계”도 “하오”도 아니요, 말을 그저 어물어물하여

끝을 아무리지 않는 말이라고 했다.

다음 이승녕(1960: 145)과 강운호(1869: 70)에 있어서는 4 등급을 함은 위의 여러 예와 비슷하나, 반말을 아예 등급 구분에서 언급치 않고 있다. 이는 반말을 완전히 등외로 친 듯하다.⁷

이상 첫째 유형에 속하는 청자 등분에 있어서는 높낮이에 따라 4~5 등급으로 명확히 가르고 있음은 공통되나, 반말 처리에 있어서 의견이 구구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쓰임이 불확정적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성이 보인다.

12. 청자 등분의 제 2 유형: 청자 신분의 높낮이를 표시함에 있어서 반말의 위치를 정하고 전체를 2大分한 특징이 있다. 그 예로서 우선 김민수/이기문(1970: 75)을 들 수 있다.

하대의 검사법	① 해라	받는다
	② 반말	받아
	③ 하계	받네
공대의 검사법	① 하오	받으오
	② 합니다	받읍니다
	③ 하옵나이다	받(으옵)나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다른 예는 成書撒(1970: 51)에서 볼 수 있다.

待遇의 等分	높임	等分	아주높임(하십시오, 하소서).....어르신
			예사높임(하오).....당신
		等外	두루높임(해요).....어르신, 당신
	낮춤	等分	예사낮춤(하계).....자네
			아주낮춤(해라).....너
		等外	두루낮춤(해).....자네, 너

이 등분에 있어서는 종래에 거론되지 않았던 “해요”를 높임에 소속시키고 또한 그것이 아주 높임이나 예사높임을 대신하여 두루 쓰이기도 함을 밝혔음이 주목할만하다. 그리고 그와 대칭적으로 낮춤 쪽에서는 반말(해)이 두루 쓰임의 구실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특히 현대 국어의 특성을 가장 면밀히 고찰하고 분석한 결과에서 얻어진 착안이라 보아진다. 현대에 올수록 다른 등급 형태보다도 “해요”와 “해”가 두드러지게 많이 쓰임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成교수의 분석은 특기할 만하다고 보여진다.

김석득(1968: 58)에 있어서 보인 대우의 등분도 이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반말을 중간 등급으로 치고 그 상하에 높낮이 형태를 2大分하였다. 이도 반말의

⁷ 강운호(1969: 70)에 있어서는 극존대는 이희승(1969)와 같이 ‘하나이다’인 반면에 보통 존대에는 “(으)비니다”와 “(으)오”를 함께 소속시킴으로써 4 등분을 하였다.

특성으로 보아 가능한 면이 있기는 하나 반말이 완전히 중간 위치라고 못박기는 난점이 있을 듯하다(\$14, (i)참조).

13. 청자 등분의 제 3 유형 : 이 세째 유형은 높낮이 관념에 입각하기보다는 문체적 차이라는 관점에서 구분하는 경우이다. 곧 높임이니 낮춤이니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정중체(polite style), 平語體(plain style), 격식체(formal style), 비격식체(informal style), 또는 친근체(intimate style) 따위 용어로 표시하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는 우선 박창해(1964: 90)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정식용어	-ta [-ipnita]
정식용어의 반말	-u/-o/-ayo
중간용어	-e
평교용어	-ta
평교용어의 반말	-a

이 등분에 있어서는 정식과 평교로 2 대분하고 각기 반말을 배분하여 그 격식성을 누그러뜨리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른바 “하계”는 중간으로 본 점이 특색이다. 이러한 등분법은 점차 높낮이 관념이 희박해져 가는 현대 국어의 성격으로 보나 사회적 계층 관념이 달라진 민주적 풍토로 보나 적절한 일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하계”가 중간으로 처질 것인지는 다소 문제가 될 것 같다(\$14, (i)참조).

일찌기 Martin (1954)에 있어서도 이 대우법을 “Style variants”라 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곧 FORMAL, POLITE, INTIMATE, FAMILAR, AUTHORITATIVE, 및 PLAIN 의 6 체(style)로 구분한 것이다.

그후 Vandesande/T. Park (1968)에 의하면 위의 Martin (1954)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예시를 보이고 있다.

- (a) The Polite Formal Style (-sūmnida style)
- (b) The Polite Informal Style (-yo style)
- (c) The Intimate Style ((b)에서 -yo 가 떨어진 것 [곧 반말])
- (d) The Plain Style (nūnda style)
- (e) The Familiar Style (-ne style)
- (f) The Authoritative Style (-so style)

그런데 이들을 높낮이로 따져 보았을 때는 두 Polite Style ((a)와 (b))과 Authoritative style (f)는 높임에 속하고 그 나머지 ((c), (d), (e))는 낮춤에 들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14. 이상 문법서와 논문들에서 대우법의 등분법을 3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거기에서 抽出되는 점과 필자가 관찰 분석한 바를 어울려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등급 구분의 근거를 세울 수 있다.

(i) 화자와의 대비에 의하여 청자를 존대 [+RESPECT]와 비존대 [-RESPECT]로 2대분한다. 2대분하는 점은 위에 보인 거의 모든 문법서와 논문에서 볼 수 있는 경향이나 반말과 “하계”의 처리에 있어서 異說이 있었다. 그런데 반말이 청자를 존대하는 말씨가 아님은 분명하다. 간혹 존대말을 써야 할 경우에도 반말이 화중에 섞여 쓰이는 경향이 있지만, 그럴 경우 반말이 많이 쓰여서 두드러지면 분명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게 된다. 반말은 쓰기 간편하고 부드러운 맛이 있기 때문에 두루 쓰이지만 존대를 해야 할 경우에는 되도록 삼가는 것이 언어 현실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반말은 분명 의식적 존대 말씨는 아니라고 보는 바이다. 또한 반말이 중간 등급이라고 하는 견해(김석득, 1968)도 있으나, 그것이 존대에 들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지금 말한 필자의 견해와 같다 할 것인만큼 자연 비존대에 소속된다. 왜냐하면 필자가 말한 비존대 [-RESPECT]는 단순히 낮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존대 아닌 것을 다 포괄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박창해 (1964)에서 중간으로 본 “하계”도 존대 아닌 비존대에 들 것이라 볼 수 있다. 친한 벗끼리 “하계”를 쓸 경우 높낮이를 가릴 수 없는 면이 있지만 그것이 수상에게는 전혀 쓰일 수 없는만큼 비존대에 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요컨대 종래처럼 높임 (또는 恭待)과 낮춤(下待)으로 나누는 것보다 이처럼 존대 [+RESPECT]와 비존대 [-RESPECT]로 나누어 자질 표시를 하면 상하의 구별이 완화된 현대 대우법의 추세를 더 잘 표시하게 된다. 그것은 특히 비존대 곧 [-RESPECT]라는 것이 반드시 낮춘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존대 아닌 모든 경우를 두루 포괄하게 되기 때문이다.

(ii) 존대 [+RESPECT]와 비존대 [-RESPECT]는 각각 격식적 [+FORMAL]인 것과 비격식적 [-FORMAL]인 것으로 나누인다. 종래 아주높임, 예사높임 (또는 아주낮춤, 예사낮춤) 따위로 하위 등분하는 것보다는 그와 같이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 근거는 현대 대우법에서는 上下 관념이 완화된 반면 말씨의 情感이 두드러지게 개입되고 있는데 있다. “해요” 체와 반말체가 현대에 와서 압도적으로 많이 쓰인다는 사실이 그 한 증거다. 成書徹 (1970)에서 지적한 대로 “해요” 체는 “합니다” 체와 거의 높낮이 구별 없이 쓰일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나 여성들에 의하여 특히 많이 애용되고 있다. 그것은 “해요” 체가 어감이 부드럽고 친밀감을 더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합니다” 체와 “해요” 체는 높낮이 차이가 있다기보다, 전자는 격식체 [+FORMAL]로 특징 지워진다면 후자는 비격식체 [-FORMAL]라는 특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다음에 이른바 예사높임이라고 한 “하오” 체는 어떠한가? 이는 얼핏 “해요” 체보다는 약간 존대의 정도가 낮은 듯이 느껴지나 대체로 상호 교체가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다. 가령,

김형이 가요? (12)

김형이 가요? (13)

나는 밥을 먹소(으오) (14)

나는 밥을 먹어요 (15)

이것은 책이오 (16)

이것은 책이어요 (17)

이상 두 쌍씩의 문장을 비교해 보았을 때 필자로서는 높낮이의 차를 별로 느낄 수가 없다. 원래 “해요”는 두루 쓰이는 특성이 강하여 “합니다” 대신 쓰이면 그만큼 높아지고, “하오”를 대신하면 그만큼 낮아지는 듯 느껴지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해요”와 일면 상통하는 “하오”도 역시 비격식 존대 [-FORMAL, +RESPECT] 쪽에 가담시킬 수가 있다고 본다.⁸⁾

그리고 이희승(1969)등에서 보인 “하소서” 체는 어떠한가? 이 체는 오늘날 문어체에나 일부 남아 있을 뿐 회화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실정이다. 또 기도문 따위에서 가끔 쓰인다고 할지라도 그 높임이 “합니다” 체보다 각별히 다르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다만 그 격식성이 두드러진다고 할만하다. 따라서 그것은 “합니다” 체보다 상위의 등급에 두기보다는 동등 이상의 격식성을 가졌다고 보는 편이 온당하다. 따라서 그것은 “합니다”와 함께 [+FORMAL, +RESPECT]에 소속시켜 두방한 것이다.

요컨대 존대 [+RESPECT]는 [\pm FORMAL]로 갈라져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RESPECT, +FORMAL] 격식적 존대(합니다, 하나이다)

[+RESPECT, -FORMAL] 비격식적 존대(해요, 하오)

그다음에 비존대 [-RESPECT]가 역시 [\pm FORMAL]로 양분되는 이유를 살펴 보자. 비존대의 말씨에 있어서도 분명히 일정체로 말해야 할 경우와 다소 말끝을 불분명히 하거나 반말체를 적당히 뒤섞어 써야 할 경우가 있다. 가령,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처럼 모든 면에서 관계가 분명할 때는 윗사람은 “해라”만을 쓸 것이다. 반면에 장성한 아우, 성인이 된 제자 따위에게는 “하게”나 반말을 적당히 섞어 써서 그 관계가 어딘가 불분명한 표현을 한다. 이 경우는 전자처럼 “해라”를 깎듯이 하는 경우보다는 엄격성이 희박해져 격식이 완화된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전지에서 “해라”를 분명히 써야 할 경우를 격식적비존대 [-RESPECT, +FORMAL]이라 할 수 있는 반면에 “하게”와 반말 따위를 적절히 뒤섞어 써야 할 경우는 비격식적 비존대 [-RESPECT, -FORMAL]로 치는 것이 타당하고 본 것이다. “해라”를 격식적 [+FORMAL]으로 보아야 할 또한 이유는 그것이 글을 쓰는데 두루 쓰인다는 점이다. 글이라는 것은 말보다는 더 격식적인 표현임은 누누히 말할 필요도 없다.

요컨대 비존대 [-RESPECT]는 다음과 같이 [\pm FORMAL]로 양분된다.

[-RESPECT, -FORMAL] 비격식적 비존대(하네(게), 해)

[-RESPECT, +FORMAL] 격식적 비존대(한다, 해라)

⁸⁾ 강운호(1969: 70)에서는 위 N.7에서 지적한 것처럼 “하오”가 “합니다”와 동등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9에서 필자가 보인 4 등분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편의상 되풀이 하면 아래와 같다.

[+RESPECT, +FORMAL]	격식적 존대	(8)'
[+RESPECT, -FORMAL]	비격식적 존대	(9)'
[-RESPECT, -FORMAL]	비격식적 비존대	(10)'
[-RESPECT, +FORMAL]	격식적 비존대	(11)'

15. 청자 각 등분의 대상과 어미——청자를 위의 4 등분으로 하고 거기 대응하는 어미를 간단히 보인 바 있거니와, 이제 각 등분에는 어떠한 구체적 대상이 해당할 것인가를 살피기로 한다. 그리고 각 등분에 대응하는 어미도 좀 더 상세히 보이려고 한다. 그러나 이 작업도 역시 위의 등급 구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일정 불변한 한계선을 그을 수가 없는 고충이 있다. 가령 [격식적 존대]만 하더라도 거기에는 절대적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상당한 융통성이 있고, 그 대응 어미에 있어서도 반드시 “ㄴ니다”만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을 보임에 그칠 수 밖에 없다.

[+RESPECT, +FORMAL]→“어른”으로 대표되는 청자, e.g. 조부모, 부모, 선생님, —장님, 각하, 어르신, 일반 청중 등

〈어미〉: (으)ㄴ니다, (옵)나이다(서술문), (으)ㄴ니까, (옵)나이까(의문문), (으)십시오, 소서(명령문), (으)십시다(청유문)

[+RESPECT, -FORMAL]→“댁” (또는 당신)으로 대표되는 청자, e.g. 선생, 노형, 임자, 그대, —씨, —장

〈어미〉: 아/어요, 지요, 오(소) 따위가 각종문 공통

[-RESPECT, -FORMAL]→“자네”로 대표되는 청자, e.g. —군; —양, 처녀, 학생, 친구 따위

〈어미〉: 네, 는가, 나, 게, 소, 세, 지, 어/아 따위

[-RESPECT, +FORMAL]→“너”로 대표되는 청자, e.g. 아이, 제군, 놈, 꼬마.

〈어미〉: (는)다, (느)냐, (어/아)라, 자 따위

이상에 보인 청자 각 등급의 대상과 어미는 대표적인 예에 불과하고 또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재삼 밝혀 두는 바이다. 다만 일반적인 한 시안으로서 필자 자신 제안함에 그친다.

16. 일단 위와 같은 관계가 주어지면 청자 대우법은 변형 규칙 (7)에 의하여 실현된다. 그 예를 구체적으로 보이기로 한다. 곧 (7)의 둘째 NP (청자)에 위의 4 등급이 차례로 주어짐에 따라 기본어미 “ta”는 그 대응 어미를 취하여 다음의 각급 문장이 생성된다.

(저는 어른에게) [날씨가 좋습니다] (DEC. PERFORMATIVE) (18)

({ 나 } 는 덕에게) [날씨가 좋 { 아요 }] (DEC. PERFORMATIVE) (19)

(나는 자네에게) [날씨가 좋 { 네 }] (DEC. PERFORMATIVE) (20)

(나는 너에게) [날씨가 좋다] (DEC. PERFORMATIVE) (21)

이상의 양변에 () 속에 든 것은 심층구조에 개입된 요소인데 표면구조에서는 물론 삭제된다. 그리고 물론 어미는 같은 등급에서는 임의로 택할 수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것만 보였다. 각종 문장 형태는 끝의 이행 요소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또 한가지 유의할 것은 “나” 대신 “저”가 선택되는 조건이다. 청자가 [+RESPECT, +FORMAL]인 경우는 필수적으로 “저”가 선택되고 [+RESPECT, -FORMAL]이면 임의적이며 그밖의 경우는 “저”는 선택되지 않는다. 이런 잉여규칙만있으면 “저”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III. 제 3 자 대우법

17. “제3자 대우법”은 화자와 청자 밖에, 화중에 나오는 인물에 따라 나타나는 것임은 이미 지적하였다(§4). 화중에 나오는 제3자는 내포문장의 주어에 해당하는 인물을 주로 가리키지만 반드시 거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른바 직접, 간접 목적어 또는 그밖의 경우에 해당하는 인물에 따르는 대우법도 나타난다. 따라서 이 제3자 대우법은 2 가지로 갈라서 다루어야 한다. 내포문장의 주어가 되는 인물에 대한 관계로 정해지는 이른바 “주체 대우법”과 그밖의 인물이나 그와 관련된 대우법 곧 “기타 대우법”으로 나누어 살펴야 하는 것이다.

A. 주체 대우법

18. 이행 문장 또는 그밖의 상위 문장에 내포되는 문장의 주어가 존대 대상이 될 때 이 대우법이 실현된다. 존대 대상이 적어도 [+RESPECT]의 자질을 가지는 인물이면 일반적으로 실현된다. 이를 우선 표식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 구조지표는

$$\begin{array}{ccccccc} \text{NP} & - & \text{NP} & - & [\text{NP} - \text{V} - \text{X}]_s & - & \text{X} \\ & & & & [\alpha R] & & \\ [1] & [2] & [3] & [4] & [5] & [6] \end{array} \quad (22)$$

변형규칙은

$$\begin{array}{ccccccc} \text{NP} & - & \text{NP} & - & [\text{NP} - \text{V} - \text{X}]_s & - & \text{X} \\ & & & & [+RESPECT] & & \end{array} \quad (23)$$

1	2	3	4	5	6	OBLIG
1	2	3	4-si	5	6	→

내포문장(S)의 주어가 [+RESPECT]의 자질을 가질 경우에 그 술어 동사(V)가 “si”를 삽입함을 보인 것이다.⁹

이제 이러한 변형이 이루어지는 여러 요건과 문제점에 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i) NP[1] 곧 말하는이는 이행 문장의 주어일 필요는 없다. 곧 최상위 일인칭 주어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문제되는 내포 문장보다 상위 문장의 주어이면 된다. 아래 두 문장은 다 성립한다.

나는 아버지께서 오신다고 말한다. (24)

동생은 아버지께서 오신다고 말했다. (25)

(ii) NP[2] 곧 듣는이는 청자 대우의 경우에 비하면 구실이 매우 약하나 이 대우법의 경우도 부차적인 구실을 한다.

아버지, 형은 내일 간답니다. (26)

어머니, 아범은 사랑채에 있어요. (27)

(26)은 화자가 “동생”이고 청자가 “아버지”일 경우이다. “형”은 “동생”의 존대 대상이나 청자가 더 높기 때문에 존대가 실현되지 않았다. (27)은 화자가 어머니이고 청자가 어머니인 경우인데 그 청자가 주체(아범)에 대한 존대에 영향을 미쳤다. 이 문제는 다음에서 다시 논의한다(아래 (iii) 참조).

(iii) NP[3]에 표시된 [α R]가 [+R] 곧 [+RESPECT]가 되는 것은 제1차적으로 화자와의 관계에서 결정된다. 곧 주체는 화자와의 대인 관계에서 적어도 존대(비격식적 존대 이상)를 받을 수 있는 인물임이 원칙이다. 그렇지 못하면 이 대우법은 일반적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청자와의 대비 관계도 NP[3]의 자질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화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청자 NP[2]가 주체 NP[3] 보다 낮거나 동등한 등급일 경우는 NP[3]의 [+RESPECT] 결정에 무관하나, 청자가 주체보다 상위 등급일 경우는 주체가 화자에 비하여 존대 대상이 되더라도 [+RESPECT] 자질을 줄 수 없다.

형님, 어머니께서 가십니다. (28)

아버지, 어머니께서 가십니다. (29)

교장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가십니다. (30)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가십니다. (31)

⁹ 인물이 아닌 경우도 있다. “비가 오신다” 따위가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논의한다 (§18, IV 참조).

화자는 “나”일 경우인데 (28)에서는 청자(형님)가 주체(어머니)보다 낮으니 당연하다. (29), (30), (31)은 다 청자가 주체보다 사실상 약간씩 높다고 할 수 있으나 [+RESPECT, +FORMAL]이라는 등급에 들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같다고 할만하다. 따라서 주체 대우법이 사용되어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31)의 경우는 약간 문제가 있다. 종래 우리의 대우법 체계에 비추어 보면 청자가 할아버지일 경우 아버지를 존대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오히려 (31)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있다. 이는 가족제도의 변천으로 할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상대적 지위가 과거보다 향상된 결과가 아닌가 한다. 특히 핵가족제도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위치는 가정의 중심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는 매우 흥미있는 현상으로서 대우법 변천의 일례라 할 것이다.

앞의 (26), (27)의 경우는 이상 논의한 경우와는 달리 청자가 주체에 비하여 한 등급 높기 때문에 주체 존대가 실현되지 못한 것이다. 곧 청자가 [+RESPECT, +FORMAL]이라면 주체는 기껏 [+RESPECT, -FORMAL]에 해당하므로 한 등급이 아래인 것이다.

이상 논의한 바를 종합하여 표식화해 보면 (22)의 α 는

$$\alpha \rightarrow + / [3] \geq [2] > [1] \quad (32)$$

과 같이 된다. 곧 $[\alpha R]$ 에서 [+RESPECT]가 되기 위해서는 (32)가 만족되어야 한다.

(iv) NP[3]에 위의 (32)에 의하여 [+RESPECT]가 나타나면 4의 “V”에는 “시”가 삽입되는 변형이 필수적으로 실현된다. 그러나 그 “V”에 이미 “시”가 개입되었을 경우에는 이 변형은 막히고 만다. 특히 그것이 “잡수시다”, “주무시다”, “계시다” 따위일 때는 거기에 이미 “시”가 개입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¹⁰

(v) NP[3]에 [+RESPECT]가 나타나지 않아도 V에 “시”가 개입되는 수가 있다.

비가 오신다. (33)

눈이 오신다. (34)

좋아 하시네. (35)

(33)과 (34)의 주어는 [+RESPECT] 자질이 주어질 수 없다. 또 (35)의 경우는 상대방을 비꼬거나 경멸하는 뜻이 들어 있다.

(33)과 (34)의 경우의 “비”, “눈” 따위 어휘는 “시” 개입을 임의로 허용하는 특수 어휘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곧 $[\pm RESPECT]$ 가 없이도 “시” 개입이 가능한 어휘표를 따로 작성함으로써 해결 되는 것이다. (35)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RESPECT]$ 인 인물이고 또 어미는 “네” 또는 “는군” 따위 특수한 것이 뒤따른다. 따라서 이런 조건이 나타날 경우에는 경멸의 뜻을 내포하는 “시”가 개입되는 것으로 예기할 수가 있는 것이니 별문제가 없다.

¹⁰ “먹다”, “자다” 따위는 “시”가 개입되면 “잡수시다”, “주무시다” 따위로 어형 변화를 한다. 그리고 “있다”는 “시”가 개입되면 “계시다”와 “있으시다” 양형으로 변할 수 있다. 그 조건에 관하여는 박순함(1967) 및 송석중(1967) 참조.

(vi) 다음 NP[3]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또 하나의 NP가 표면구조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2중 주어 문제와 관련된 경우이다.

형님은 기술자가 되실 것입니다. (36)

형님은 기술자가 아니십니다. (37)

(36)은 내면구조에서

형님은 기술자로 되실 것입니다. (36)'

따라서 둘째 NP는 주체(내면적)가 아니므로 (36)은 당연히 첫째 NP “형님”에 의하여 “시”가 개입되었다고 설명된다.¹¹

(37)의 경우는

형님은 기술자이십니다. (37)'

에서 부정 변형으로 생성된 것이므로 “형님”이 주어이다. 따라서 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데 다음 예를 보자.

아버지께서 일이 있으십니다. (38)

선생님께서도 호랑이가 무서우십니까? (39)

둘째 NP가 주어라고 볼 적에 주체 대우법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만일 그 내면구조를 각각

아버지께서 일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38)'

선생님께서도 호랑이를 무서워 하십니까? (39)'

와 같이 잡는다면 주체 대우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더욱 연구를 필요로 한다 (다른 해결법은 §19, (ii)에 보인다).

(vii) 그밖에도 2중 주어적 표면 현상에 “시”가 개입된 예가 많이 있다. 이들에 관한 만족할 만한 해결은 현재로서는 유감스럽게도 찾기 힘들다고 생각된다. 다음 B절에서 그중 일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19 (ii), (iii) 참조).

B. 기타 대우법

19. 화자 대우법이나 주체 대우법의 범주에 들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 대우법 현상이 있다. 이들은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i) 목적적 인물 존대라 할 수 있는 경우이다.¹² 이른바 직접·간접 목적어가[+RESPECT]의 자질을 가지면 존대 동사가 뒤따르는 것이다. 이 동사는 제한된 일부 동사이며 화자나 주체 존대와는 관계가 없다.

나는 그것을 아버지께 드렸다. (40)

나는 그것을 어머니께 여쭙었다. (41)

¹¹ 이런 2중주어의 내면적 주어는 서정수(1971) 등에서 다루고 있다.

¹² “客體 존대”라 하는 용어도 쓰이나 “客體”의 개념에 문제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피했다.

나는 선생님을 뵈었다. (42)

나는 사장님을 모시고 갔다. (43)

현대어에서는 일부 어휘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어휘 자질로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가 있다.

드리, 바치, 올리, 여쭙 / NP — 께 —
[+NP] (44)

뵈, 모시 / NP — 를 —
[+NP] (45)

(ii) 처소(處所)격 대우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처소”는 인물과 장소에 다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서정수 1970: 201).¹³

그 돈은 어머니께 있으십니다. (46)

선생님께는 책이 많으시군요. (47)

김선생님 댁에도 책이 많으십니까? (48)

곧 처소가 [+RESPECT]와 관계가 있음으로써 “시”가 개입된 예라 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전절의 (38)과 (39), 그리고 다음 예들도 내면구조로 따져 해결할 가능성도 있다. 먼저 (38)과 (39)는 각각

일이 아버지께 있으십니다. (38)''

호랑이가 선생님께는 무서우십니다. (39)''

곧 “일”이나 “호랑이” 보다는 처소격이라 할 수 있는 “아버지께” “선생님께” 때문에 “시”가 개입되었다고 해석해 보자는 것이다.

할아버지께서는 병환이 나셨다. (49)
(병환이 할아버지께 나셨다)

선생님께서는 그 문제가 쉬우십니까? (50)
(그 문제가 선생님께 쉬우십니까?)

귀댁에는 연고가 있으십니까? (51)
(연고가 귀댁에는 있으십니까?)

(iii) 간접 대우라 할 수 있는 경우이다. 그 간단한 예로서는 [+RESPECT]의 자질을 가진 인물과 관련되는 사물 또는 인물을 존칭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선생님의 말씀, 덕의 따님(아드님), 아버님의 진지, 할머니의 병환” 따위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예는 흥미가 있다.

할아버지께서 코가 크십니다. (52)

그 신사는 말씀이 점잖으십니다. (53)

¹³ “처소”라는 개념이 불명한 바 있으나 편의상 사용했다. 더 적절한 용어가 아쉽다.

그분께서는 따님이 출가하셨습니다.

(54)

직접 주어는 둘째 NP 라 할 수 있는 만큼 “시”의 삽입은 얼른 설명되지 않는다. 내면구조로 따진다면 각각 둘째 NP 가 첫째 NP 의 일부를 이룬 경우이다. 따라서 첫째 NP 에 부여된 [+RESPECT] 자질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을 듯하다.¹⁴ 이는 일종의 존대 의식 확대 현상이라고 볼만하다.

IV. 맺 음 말

20. 국어의 대우법은 모든 문장의 생성에 심층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서 청자 또는 화중 인물에 대하여 話者로 하여금 알맞는 대우 의식을 필수적으로 들어내게 하는 언어·사회적 특성을 지닌다. 이 “대우 의식”은 종래 敬語法, 尊待法 또는 下待法 따위처럼 말씨의 높낮이 관념으로 파악 기술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말씨의 높낮이 관념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그것을 문체적 관점에서 다루려는 경향도 나타나게 되었다.

필자는 현대 대우법의 실태와 이런 추세를 고찰한 나머지 대략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a) 대우법은 청자 대우법과 제3자 대우법으로 나눈다.

(b) 청자 대우법은 이행적 분석 이론에 입각하여 최상위 1 인칭 주어(“나”)를 話者로 하고 그 2 인칭 간접 목적어를 聽者로 한 내면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가장 명시적으로 기술된다. 이때 대우법은 청자에게 주어지는 등급 자질(feature)에 의하여서만 실현된다.

(c) 청자 대우의 등분은 높임이나 낮춤 따위 尊卑 관념을 완화하여 [+RESPECT]와 [-RESPECT] 곧 존대와 비존대로 2大分하고 다시 문체적 관점에서 세분하도록 함이 합리적이다. 그 결과는 대략 다음과 같다.

(i) [+RESPECT, +FORMAL]: 격식적 존대<“어른”으로 대표되는 청자, 대응 어미로는 “비니다”, “(옵)나이다” 따위>

(ii) [+RESPECT, -FORMAL]: 비격식적 존대<“댁(또는 당신)”으로 대표되는 청자, 대응어미로는 “어/아요”, “오(소)” 따위>

(iii) [-RESPECT, -FORMAL]: 비격식적 비존대<“자네”로 대표되는 청자, 대응 어미로는 “어/아”, “네” 따위>

(iv) [-RESPECT, +FORMAL]: 격식적 존대<“너”로 대표되는 청자, 대응 어미로는 “(는)다” 따위>

(d) 제3자 대우법은 주체 대우법과 기타 대우법으로 나눈다. 주체대우법은 내포 문장의 주어가 되는 인물(주체)에 주어지는 자질 [α RESPECT]로 결정된다. “ $\alpha \rightarrow +$ ”일 경우에 서술 동사에 “시”가 삽입됨으로써 실현된다. 그런데 그 자질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주체에 대

¹⁴ 장석진 교수는 이를 일종의 “honorific spread(?)” 현상으로 본다고 어학연구 발표회에서 구두로 지적한 바 있다.

한 화자 및 청자의 관계에서 이루어 진다. 곧

$$\alpha \rightarrow + / [3] \geq [2] > [1]$$

단[3]은 주체, [2]는 청자, [1]은 화자이며 “>”은 높낮이 관계를 표시한다.

(e) 그러나 이 주체 대우법은 아직도 완전 표식화하기 어려운 예외와 문제점이 있다.

(f) 기타 대우법은 다음 예에서 보듯 여러 형태가 있다.

(i) 목적격 인물 대우: “나는 그것을 아버지께 드렸다.” “나는 선생님을 뵈었다.”

(ii) 처소격 대우: “선생님 댁에는 책이 많으시군요.” “(?) 그 돈은 어머니께 있으십니까”

(iii) 간접 대우: “할아버지께서 코가 크십니다.” “그 신사는 말씀이 점잖으십니다”

(g) 이 기타 대우법은 일종의 존대 의식 擴大 현상이라 볼만한 것으로 아직도 만족할 만한 설명이 아쉬운 실정이다.

참 고 문 헌

- 강운호. 1969. 정수 문법. 서울:지림출판사.
- 김민수. 이기문, 1970. 표준 문법. 서울:어문각.
- 김석득. 1968. “한국어 尊待形의 擴大 構造,” 人文科學, No.20.
- 김윤경. 1957. 고등 나라말본. 서울:동아출판사.
- 김형규. 1947. “敬讓詞의 研究,” 한글, No.102.
- 김형규. 1962. “경양사 문제의 재론,” 한글, No.12.
- 박창해. 1964. 한국어 구조론 연구 3: 형태소론 및 형태소 배합론. 서울: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
- 서정수. 1971a. “국어 부사류의 구문론적 연구(II): 제약부사론” 東方學志, No.12.
- 서정수. 1971b. “국어의 2 중 주어 문제,” 국어국문학, No.52.
- 成耆徹. 1970. “國語待遇法研究,” 忠北大學校 論文集 No.4.
- 安秉禧. 1961. “主體謙讓法の 接尾辭「습」에 對하여,” 震檀學報, No.22.
- 李崇寧. 1961. 中世國語文法. 서울:乙酉文化社.
- 李崇寧. 1963. “敬語法研究,” 震檀學報, No.25, 26.
- 이승녕. 1960. 고등국어문법. 서울:을유문화사.
- 이희승. 1960. 새고등문법. 서울:일조각.
- 정렬모. 1956. 신편고등국어문법. 서울:한글문화사.
- 정인승. 1966. 표준고등말본. 서울:신구문화사.
- 최현배. 1961. 우리말본. 서울:정음사.

- 許 雄. 1954~63. 中世國語研究. 서울:正晉社.
- 허 응. 1968. 표준문법. 서울:신구문화사.
- Clark, Allen D. 1958. Korean Grammar for Language Students. Seoul. (Memeograph).
- Lee, Hong-Bae. 1970. A Study of Korean Syntax. Seoul: Pan Korea Book Co.
- Martin, Samuel E. 1954. Korean Morphophonemics. Baltimore: The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 Park, Soon Ham. 1967. A Transformational Analysis of Negation in Korean.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 Ross, John. 1968. "On Declarative Sentences," in Jacobs, R.A., and P.S. Rosenbaum (eds.) 1970, Readings in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222-72.
- Song, Seok Choong. 1967. Some Transformational Rules in Korean.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 Anthony Vandesande and Francis Park. 1968. Myongdo's Korean '68. Part I. Seoul : Myongdo Institute.

論 評

張夷嶺: 제가 생각하는 model과는 다르지마는, 대우법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점, 특히 문장 안에 일어나는 간접목적어든지 '호리다'라는 예를 들어 말씀하셨고, 또 청자대우법과 주체대우법의 둘로 크게 나누어서 다루었다든지, 더 나누면 셋으로 될 수도 있겠읍니다마는, [RESPECT]와 [FORMAL] 하다는 두 자질들을 가지고 최소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물론 speech level의 수가 몇이냐가 문제가 되겠읍니다만), 크게 「높인다」와 「낮춘다」는 것 이 둘로 해서 간결하게 형식화(formalize)하셨다는 점에 대해, 공감이가는 바입니다.

formalism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읍니다. 물론 통사적인 내면구조(deep structure)를 인정하지 않고 그대신 의미 구조(semantic structure)에 관심을 갖는 제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어이론과 model에 대해서 논평하고 싶지 않고, 이 홍배선생님의 논문으로 소개되어 널리 알려진 소위 performative sentence 안에서 대우법의 문제가 제일 잘 해결되리라는 논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제 욕심같아서는 일단 performative analysis를 인정한다 할 것 같으면 이제부터라도 내면 구조운운하는 통사론의 한계를 벗어나서 의미 구조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것이 아까 이 홍배선생님 발표에서 '하다'의 문제 — 즉 삭제(delection)나 첨가(addition)나 하는 문제도 내면구조에 놓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성의미론(generative semantics)를 따르는 입장에서 보면 내면구조를 부인하는 의미 구조상에서 「하다」가 논의됐어야 했겠지요. 그러니까 performative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어차피 통사론의 문제를 넘어서서 더 깊은 의미구조에서부터 기술을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데 들어가서 이런 것까지도 좀더 언급을 해주셨으면 하는 점 한가지만을 들겠읍니다. 물론 서선생님이 말씀하신 주체대우법에서 문장안에서 언급되는 subject를 중심으로 말씀하시면서 간접목적도 문제가 된다고 간단히 언급하시고 그 예로 '말하다/말씀하다'를 드셨는데 사실 '말하다/말씀하시다/말씀드리다/말씀드리시다' 또는 '주다/주시다/드리다/드리시다'와 같이 말하는이, 주어, 간접목적의 셋이

관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좀더 깊이 기술해 주셨으면 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승녕 선생님 말씀을 빌려 이런 관계가 차차 사라져 간다고 하였고,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서 더 언급 하하지 않은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체대우법에서 ‘시’의 삽입을 형식화 하셨는데 이 주체대우법을 좀 더 넓혀서 생각할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화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제가 아까 제 예문에도 어딘가 [HONOR]라고 —feature로 보지 않고 discourse operator라고 보는 건데— 표시하고 언급할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화자와 언급되는 화중인물(들)과의 관계에서 문장전체에 확산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HONOR]는 동사에만 붙는 것 뿐 아니라 ‘honor’ 될 수 있는 객체가 화중에 있으면, 가령 ‘선생님’의 ‘님’자가 들어간단든지 또는 ‘사장님께서서’의 ‘이’ 대신 ‘께서’가 쓰인다든지 명사나 토에까지 확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동사에서는 ‘시’의 삽입뿐 아니라 ‘죽다’가 ‘돌아가시다’라든지 ‘먹다’가 ‘잡수시다’, ‘자다’가 ‘주무시다’로 되는 따위 우리말의 현상도 같이 기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예에서도 ‘시’라는 형태가 — ‘주무시다’의 ‘시’나 ‘잡수시다’의 ‘시’ — 들어가니까 같은 현상이 겹치요. 어떤 객체 자체가 공대되느냐에 따라 낱말이 선정된다는 것도, 이와 같은 discourse operator의 작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기술하느냐, 어떻게 형식화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겠습니까마는 ([RESPECT]라는 feature로 보느냐 [HONOR]라는 discourse operator로 보느냐 등등) 이러한 요소가 화중에서 확산될 곳이 있는 데까지 다 미치는 것이 아닌가 보는 것입니다. 동사에 ‘시’가 들어가는 것도 그중 한 현상으로 보고 ‘님’이라든지, 동사가 다른 형태를 취하는 것이라든지 다 하나의 연관된 것으로 기술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討 論

尹鍾赫: 이런 경우가 있어요, 버스를 타면 차장이 ‘빨리 빨리’ 하기가 일쑤인데 나이먹은 사람이 “아, 고운말 씨라, 뒤에 뭘 붙여야지, 빨리 빨리가 뭐야, 어른한테”라고 나무라지요. 저는 국어학자들에게 뭐를 요구하는가 하면 이시점에 어느정도 생략을 해서 써도 결례가 되지 않는지 이걸 맞추어서 미리 앞서 가는 것이 낫지 않는가, 급해 죽겠는데 반드시 “이 elevator는 3층까지 갑니다. 3층에서 내리셔야 합니다.”라고 하지 말고 “3” 이것으로도 결례가 되는지, 일일이 뒤에 말을 부치니까 일이 늦어지고 전화 걸기도 쑥쓰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어느 정도 생략을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徐正洙: ‘요’자 하나 붙이면 됩니다. ‘3층요.’ 우리 말에는 생략성이 영어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 어느 부분에 많은가 하려는 앞부분에 많습니다. 우리 말의 모든 것은 뒤에서 결정이 됩니다. 뒷부분의 어미 하나에 따라서 높고, 낮고,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우리 말은 한참 잠자다가도 마지막에 ‘야’나 ‘냐’나 ‘소’나 ‘입니다’나 ‘어’나 이것만 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특징을 얘기하자면 앞부분은 생략해도 좋은데 마지막의 어미만은 힘써 달라라는 것입니다.

襄亮瑞: 발표에서 언급하신 (나는 당신에게) [날씨가 좋소]에서 ‘당신’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당신’이예요, 또는 자기 애인이나 아내를 가리키는 것이예요?

徐正洙: 이 ‘당신’이라는 말 때문에 가장 웃기는 예가 무엇인가 하면, 외국사람들이 말을 배웠을 때에, ‘you’의 해당어가 ‘당신’이라고 배워서 자나깨나 ‘당신’이라고 해서 불쾌해진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당신’이라는 말이 상당히 낮은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쓰기 어려운 말이고. 그러나 여기서는 편의상 그저 당신 정도에 해당하는 ‘때’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안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당신’보다 상당히 높은 말로 보는 것입니다.

襄亮瑞: 그리고 ‘좋습니다요’ 할 때의 ‘요’은 무엇입니까?

徐正洙: ‘요’를 많이 붙이는데 저도 ‘요’에 대해 유심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좋습니다’까지 해서

상당히 높였는데 거기다가 ‘요’를 붙여서 약화시킬 필요가 있는가 하고 말이죠. 일본말에서 마지막에 ‘요’를 붙이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高永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화기 자료를 들춰보며는 ‘값읍니다요’ ‘값니다요’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며는 이것은 문법학자의 설명대로 ‘존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부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아요’의 ‘요’와는 달리 말입니다.

成者微: 질문이 될런지 저 자신 잘 모르겠는데 질문이라는 부담감보다도 그냥 들어주세요. 14번 끝에서 이것을 어휘자료로 보지 않고, 말하는 사람의 두 경우를 조합해서 4가지로 했는데, ‘요’나 ‘반말’을 어떤 자질로서 구분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밑의 16번에 4가지 구분에서 ‘좋읍니다’ ‘좋소’ ‘좋이’ ‘좋다’로 되었는데 ‘좋아요’와 ‘좋다’는 어떻게 구분의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왕 일어난 김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빨리 빨리!’ 하면 불쾌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것은 반말하고 같습니다. 우리 말이 어디서 생각하든간에 말을 중단하였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반말과 같은 성격을 띄웁니다. 그래서 ‘제가요?’ 할때는 높지마는 ‘제가?’라 할때에 ‘내가?’와 거의 같은 격이 되겠습니다. ‘내가?’하고 그칠 때는 반말과 마찬가지로 집니다. 또 ‘빨리’에서 아까 서선생님이 ‘요’를 붙이면 된다고 하셨는데 ‘요’를 부치면 존대가 되어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빨리’만 하면 반말이 됩니다. 그래서 말을 계속할 때에도 어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했을 때에도, 어른이 얘기를 했을 경우에 ‘그래서’했다면 반말이 됩니다. ‘그리고’도 마찬가지로 반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듣는이에게 상당히 불쾌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를 들었을 때는 반말을 들은 것하고 똑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문제가 나와서 고영근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과거에 정인승 선생님께서 ‘눔침’이라는 말을 써서 어감을 부드럽게 하지 않느냐고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물론 ‘해요’했을 때에 어감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또 반말도 그러며는 부드럽습니다. ‘자네가 가!’, ‘네가 가!’ 하는 것이 ‘가라!’하는 것보다는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반드시 ‘요’ 붙는 말만이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요’가 붙어서 느끼는 어떤 부드러움은 낮춤의 반말에서도 똑같이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더. 아까 선생님께도 반응담 삼아 ‘네가 가라’하고 눈치봐서 좀 안됐으면 ‘네가 가’하라고 말씀하셨읍니다라는 그것은 저희가 주의를 좀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반말이라는 것이 반드시 ‘네가 가!’ 또는 ‘자네가 가!’ 이렇게 되는 것만 아니라,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제일 높은 ‘당신’이나 ‘어른’을 주어로 하는 어휘에도 반말이 붙는 상당수의 예외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높임의 ‘어른, 선생님’ 하는 경우에 반말이 뒤에 가서 붙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만 쓰이며, 두번째 ‘당신, 임자, 노형, 닥’ 다 마찬가지로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럴 적에는 반말이 상당히 붙습니다. 예를 들면 친한 사이에 좀 격식을 차리지 않는 경우이겠읍니다라는 ‘이번엔 선생님이 좀 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른’과 ‘당신, 자네, 너’에 대해 ‘좋읍니다’와 ‘좋소, 좋네, 좋다’로만 되어 있다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폭이 있어서 이 폭에 대해 어떤 정확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徐正洙: ‘요’는 [+respect]보다 지금 말한대로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formal]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제 개인으로는 [-respect]로 해서 [-formal]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네, 좋다’를 주로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 있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존경해야하는 경우에 반말도 아니고 ‘요’로 해서 상대방이 불쾌해 한다고 보는데 그것을 [+respect]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